

포항시, 청정 임산물 유통 중심지 도약... AI 등 핵심기술 선도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첫삽 고령화 등에 생산능력 저하 대응 임산물 가공·판매 새로운 지평 열어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옆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현장에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임산물 가공센터, 포항시산림조합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동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손병웅 포항시산림조합장, 경북도내 산림조합장, 도·시의원, 임업단체 대표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임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임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임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산림청 공모사업인 '원격별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지난 2022년 4월 선정



포항시가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옆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현장에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임산물 가공센터, 포항시산림조합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돼 기본계획 용역·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6일 드디어 첫 삽을 떴다.

물류터미널이 완공되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인공지능로봇연구본부)에서 연구개발 중인 'AI 기반 임산물 자동화시스템'과 산딸기 살균·소독시설, 송이버섯 분류 등 최신 시설을 도입해 임업 분야의 핵심기술 선도하며 청정 임산물 유통의 기반 시설로 조성한다. 또한 복구 기계면 내단리 일원에

조성되는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는 첨단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목재의 생산·가공·저장·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자연건조시설, 자동제제 시설, 목재펠릿제조시설, 복합소재(CXP) 생산설비를 구축해 고품질 국산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재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임산물 가공센터는 농산물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은 임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관성을 높이는 산딸기 튀려, 송이 슬라이스, 포장 산나물 등 임산물 가공·판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웅 포항시산림조합장은 "경상권역 임산물 유통 기반시설이 포항을 중심으로 조성돼 기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림조합원과 임업인들의 권익을 높이고 임업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착공하는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임산물 가공센터, 포항시산림조합 신청사를 중심으로 포항이 청정 임산물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양진흥공사-SH수협은행 '안전 바다로 조성' 사업 맞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SH수협은행은 지난 16일 부산 용당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지원사업'의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양 분야 전문 금융 기관인 해진공과 수협은 항만도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부산시교육청, 남구청, 초록우산 등과 '안전 바다로 조성'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후보지 위험도 평가, 관계자 인터뷰 결과에 따라 첫 번째 지원 학교를 부산 용당초로 선정했다.

이번 안전 바다로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노후 옹벽 개선 ▲안전 쉼터 ▲등하교 픽업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사인물 등이 보강 및 조성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정기총회

전남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오는 19일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소재의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제1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 연합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기총회와 기념식,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어업 발전 기여자에 대한 전남도지사와 신안군수 표창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또한,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연합회 회원과 신안군이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경남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국비 예산 9억 6000만원 확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 확보 진주시, 함양군, 밀양시에 32억 투입

경남도는 내년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하나로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국비 예산 9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도 자율계정으로 시군 지역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비 또는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국비 예산은 총 56억 4300만원으로 이 중 경남도는 국비 9억 6000만원을 확보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기간은 시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진주시, 함양군, 밀양시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20%, 시군비 50%이며 건립 후 시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실·유기동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통영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개선된 유기동물 보호시설, 진료실, 격리실, 사료 보관실 등을 갖춘 시군 지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주시와 밀양시는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상남도농정국장은 "도내 동물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덕군은 지난 16일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 선적식을 북영덕농협 창수지점 선별장에서 개최했다. /영덕군

영덕 사과, 대만에 15만달러 규모 수출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 선적식 개최

영덕군은 지난 16일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 선적식을 북영덕농협 창수지점 선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적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서석조 북영덕 농협조합장, 사과수출공선회 농가 등이 참석했다.

영덕 사과는 동해안 특유의 해풍과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새콤달콤하며 향과 과즙이 풍부하여 대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사과 가격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만에서 영덕산 사과가 높은 인기를 끄는 이유로, 영덕군

과 창수면 사과수출공선회 농가들은 수출에 대한 의지와 사과 선별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수출 판로를 확보한 결과 올해 26.4톤의 물량을 대만에 수출하게 됐다.

이에 이번 1차 선적엔 영덕산 사과 13.2톤이 대만으로 보내지게 되며, 연말까지 2차 수출을 완료해 약 15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 시설과 품질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 우수 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

경남 양산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 환경 조성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한 결정이다.

시는 이번 센터 설치에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중 양산시가 최초로 이뤄

진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임을 의미한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노후유공유,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내년부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본격화

설계비 예산 162억 확정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 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는 시의회에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설계비 예산은 162억 원이다.

신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7만 8000㎡ 정도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건립되며, 시 본청과 의회가 함께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재원은 신청사 건립기금과 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마련해 지방채 발행없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선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설계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밀양시

성실납세 시민 대상 경품 추첨

경남 밀양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자동이체와 정기·수시분 등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2만54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추첨에는 안병구 시장, 허홍 시의회 의장, 이·통장협의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